

편견이 낳은 군대와 사회의 동성애자 차별

임 태 훈*

이 원고는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¹⁾]에서 강사로 참여하면서 작성한 자료를 보충 수정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지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사 3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군 생활 중 학력 차별을 경험 했다는 비율이 응답자의 12.74%로 나타났다²⁾. 그리고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사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학력차별을 경험 했다는 비율이 응답자의 2.8%에 그쳐 군 생활에서 학력 차별의 문제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 하지만 군대

*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논문학기 중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1999-2002)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 (1999-2001)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 집행위원 (2000-2001)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공동대표 (2001-2002)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집행위원 (2001-2002)

국제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 대표 (2003-2004)

하리수 예명분쟁사건 소송자문 (200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기간 Amnesty International 본부로부터 양심수로 선정(2004-2005)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공동연구원 (2005)

제1회 성공회대학교 인권영화페스티벌 프로그래머 (2006)

법무부 장관 위촉 교정시민옴부즈만 (2006-2007)

사단법인 한국여성성전화연합 여성재소자 인권정책 팀장 (2006)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사업 공동연구원 (2006)

민주노동당 노회찬 국회의원 [구금시설 내 인권실태조사] 책임연구원 (2006)

1) 2006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동안 육군 계룡스파텔에서 육군, 해군, 공군의 장병기본권 교육관들을 대상으로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본 필자는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과 [군 지휘관 인권리더쉽 과정(육군 4개군단 대대장급 160여명 교육)] 기획과정에 인권전문가로 참여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미련을 위한 기초연구], 천주교인권위원회. 2002. 66쪽

3)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홍구. 2005. 208쪽

내에 크고 작음을 떠나 차별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상명하복과 집단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군대의 특성상 차별의 문제는 쉽게 은폐되거나 용인될 수 있으며, 그 사례가 비록 적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는 군대에서 병사들이 차별로 인한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의 문제가 ‘다름’과 ‘차이’를 허용하지 않는 불관용의 문제이며, 약자와 소수자에게 치명적인 소외와 배제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계상 작게 보이는 차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군대의 특성상 차별의 양상이 소수에 대한 집단적인 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부일 망정 여전히 잔존하는 차별요인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군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군대 내 인권실태조사는 대부분 구타와 가혹행위 등 자유권(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고,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군대 내 실태조사는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⁴⁾,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군대 내 실태조사는 기존의 자유권과 의료권, 환경권(의식주), 월급 등 사회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을 대폭 포함시킴으로써 군인 인권에 대한 접근개념을 확장시켰다. 종래 군대 내 대표적인 인권문제인 구타나 가혹행위 등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아직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의 영역이 성희롱과 성폭력, 언어폭력, 인격권 보호, 사생활 침해 방지, 자기계발 기회의 보장 등 새롭게 제기되는 - 물론 과거에도 존재했던 것이지만 - 문제들로 확대되어가는 상황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과거의 군대 인권이 두들겨 패는 문제에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병영 내 인권의 문제가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존중, 자기계발의 기회 보장, 정신적, 경제적 불이익과 박탈감의 방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으로 보다 다양화되고 다각화되고 있다.

자유권이 1세대 인권이라면 사회권은 2세대 인권에 속한다. 21C로 접어들면서 3세대 인권인 ‘다를 수 있는 권리’가 주목받고 있다. ‘다를 수 있는 권리’는 ‘차이’(difference)로 부터 시작한다. 과거 획일화 된 사회에서 ‘차이’는 ‘열등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잘못된’ 것 또는 ‘교정’해야 하는 대상으로 치부되었다. 여성, 유색인종, 이주노동자, 장애인,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소수종교, 특정이념 신봉자들, HIV 감염인과 AIDS 환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배척내지는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아왔다. 군이라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 그리고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다. 3.1%의 여성군인들이 받고 있는 성차별과 군을 위해 헌신하며 오랜 세월 충성한 간부들이 건강 등 여러 사유로 장애를 갖게 되어 전역조치되는 현실(장애차별), 자신의 성적체성이나 성적지향이 주변에 알려 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

4)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 권인숙. 2004.

가고 있는 수많은 동성애자 장병들, 그리고 군 입대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게이 예비 입영자들 - 모든 동성애자들이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다고 볼 여지가 있다 - 이러한 상황들이 대표적으로 군대 내에서 차별받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국민 인권의식 조사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이 가장 심한 기관으로 43.4%가 ‘군대’라고 응답했으며, 30.8%가 ‘구급시설’이라고 응답했고, 27.9%가 ‘경찰’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방부가 60만 장병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 그 자체다. 국민들이 느끼는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체감온도는 더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문제에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 중 28명이 정보 인권, 25명이 이주노동자 인권, 20명이 빈곤층과 비정규직노동자의 인권, 15명이 성적소수자의 인권, 13명이 외국인 인권, 13명이 북한인권, 11명이 노인 인권, 7명이 장애인 인권, 6명이 환경 인권, 5명이 과학기술과 인권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은 성적소수자 인권문제가 대두되는 양태는 첫째, 다양한 차별 영역과의 맞물림으로 인한 성적소수자 문제의 확대와 성적소수자 개념의 분화 그리고 청소년 성적소수자 문제를 언급했고, 특히 성적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는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을 주문했다. 앞으로 대두될 인권문제로 성적소수자의 인권이 4위로 그 심각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위의 보고서에서 군대가 인권침해와 차별이 가장 심한 기관이라는 응답이 1위로 조사된 것과 앞으로 대두될 인권으로 성적소수자 인권이 4위로 조사된 것을 교차해서 분석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 결과의 심각성을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건사례로 보는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1) 육군 모 사단“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사건

이 사건의 요지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한 것으로 피해병사는 2005년 6월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고충상담(공동샤워 및 취침관련)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게 되었고, 이후 피해병사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전역심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성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키스 사진을 제출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 사진만으로는 동성애자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부

대 책임자들의 통보와 함께 성행위 사진을 제출 할 것을 요구받기에 이르렀으며, 명시적 동의 없이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와 매독 검사를 받게 되었다.

[사례 1]

대학재학 중 군입대를 함. 2005년 6월 28일 102보충대에 입소함. 2005년 7월 1일경 1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였고, 3일 후 소대장에게 바라는 점을 쓰는 용지에 샤워를 따로 했으면 좋겠다고 씀. 이후 소대장 면담에서 잠을 따로 잘 수 없느냐는 질문을 했고, 소대장이 이유를 묻자 본인은 비밀이 보장이 되는지 물었고, 소대장은 적극 비밀이 보장되며 단 중대장에게만 보고된다고 하였다. 본인은 동성애자이며, 잠잘 때 신체적 접촉이 싫고, 같이 샤워하는 것도 싫다. 현재 남자 애인도 있으며, 애인도 이런 이유로 7사단에서 전역을 하였다고 말했다.

며칠 후 중대장의 호출로 면담을 하게 되었고, 중대장은 게이들은 군대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현역부적합 심사로 전역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중대장과의 면담이 끝나고 2주 후 정신과 외진 통보가 왔고, 군단병원으로 정신과 외진을 감. 외진에 동행한 사람은 중사 1명, 의무병 1명, 기간병 병장 1명, 조교 1명 총 4명이다. 정신과 군의관 진료에서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함께 온 중사와 의무병을 내보내기 위해 일대일 진료를 요구 하였으나 묵살 당함. 이후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잘 이야기를 못하다가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이야기 했고, 의무관은 뭐가 힘드냐고 물었고, 본인은 같이 잠자는 것도 힘들고, 남성다움을 강요당하는 것도 힘들고, 나중에 자대 배치 받은 후 고참이 되어서 후임들을 건드리는 가해자가 될까 봐도 두렵다고 이야기 함. 이후 군의관은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으며, 호르몬 주사를 투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으며, 동성애는 정신병명에 없으니까 너에게 해줄 이야기도 없고, 지어줄 약도 없으니 그냥 자대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신병교육대에서 부모님의견서를 전달 받는 과정 중 함께 훈련받는 병사들이 본인의 부모님 의견서를 보게 되었는데 이성관계란에 아버님이 기재하신 내용은 동성을 좋아함이라고 쓰여 있었으며 그 뒷면에는 제 아들이 동성애자로서 많이 힘들어하니 잘 부탁드린다고 쓰여 저 있었음. 결국 이 모든 내용을 일부 병사들이 알게 됨.

2005년 8월 5일 51연대 의무중대 환자실에 입실을 명받았으며, 또 한번 군단병원으로 정신과 외진을 갔고, 그날 의무병이 보는 앞에서 HIV 검사를 받았다. HIV 검사를 받기 전 중대장의 호출로 면담을 하게 되었고,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 기간을 물었으며, 나의 성장사라는 것에 예전에 게이바에서 일한 사실을 기재하였는데 일한 곳이 어디 있냐고 물었고, 성관계는 일주일에 몇 번 하는냐고 물었으며, 에이즈 걸렸냐는 질문도 했다. 이에 본인은 입대 전에 헌혈

한 적도 있고, 입대 후 102보충대에서도 현혈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무중대장은 너 현혈 왜 했냐, 큰일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으며, 현혈한지 얼마나 되었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좀 있다가 정신과 외진 받고 나서 에이즈 검사하러 가자는 말을 했다.

8월 중순경 본인에게 부적합심사를 하기 위해 동성애자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애인과 키스하는 사진과 동성애자들과 주고받았던 메일이 들어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출하였다.

9월 14(또는 16일)일 경 의무중대장이 구체적인 성관계를 하는 사진이 있느냐고 물었고, 본인이 없다고 이야기 했으며, 키스하는 사진만으론 동성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신빙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심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연대에 와서 대인기피를 느끼게 되었고, 우울감과 자살충동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티어 내었다. 식당에 밥먹으러 가서 사람이 많으면 구역질이 나오고 환자실에 사람이 많으면 불안해 화장실에 들어가 몇 시간씩 숨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런 증세로 너무 힘들어 9월 중순경 사단장께 저의 여성적성향이 강한 성격을 설명하는 편지 한 장과 힘든 점과 전역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사진 찍기도 싫고 있지도 않지만 찍어 오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중대장을 통해 사단으로 붙였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10월 17일 100일 휴가를 나올 당시 중대장 교육 때 중대장이 너 휴가 나가서 사진 찍어 올 거냐고 물었고, 본인은 무슨 사진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중대장은 지난번 이야기 했던 사진 있잖아라고 말했다. 본인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100일 휴가를 나와서는 오로지 이 사진을 찍기 위해 며칠 동안 이반시티 채팅방을 들어가서 상대방에게 섹스하는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는 질문을 했으나, 대부분 이를 거절했고 결국 3일 만에 성명불상의 50대 아저씨에 동의를 얻어 섹스하는 사진을 찍었다. 목적을 달성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내 자신이 수치스러웠고 혐오스러웠지만 살고 싶은 맘에 찍었고, 지금 그런 사진을 다시 찍어오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10월 21일 복귀한 후 정신과 진료소견서와 성관계 사진이 담긴 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의무중대장에게 제출 하려고 했으나 진료소견서만 받고, 사진은 오○○ 중사(사제담당관)에게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러 갔는데 오○○ 중사는 이는 인권침해이므로 필요 없다고 했다. “휴가 3일전 본인이 오○○ 중사께 사진을 찍어 와야 합니까”라고 물었고, 오 중사는 “그런 사진 필요없다고”만 했다.

11월 중순경 오○○ 중사의 호출로 면담을 하는데 너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사단으로 올리는데 그 때 찍어온 사진이 담긴 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본인은 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 다음날 오 중사가 또다시 호출해서 너를 못 믿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일 잘못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봐도 좋다는 확인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본인은 써주었다.(의무중대 후송반장(성명미상의 중사)에게 보고하고 지통실로 내려감. 병사 두 명의 소포검사를 했음. 51연대 지휘통제실에서 저녁 9시경 작전장교 성명미상의 소령)

2006년 1월 26일 환자실에 입실 해 있던 51연대 본부중대 병사(2005년 10월 군번 본부중대 이○○ 일병)가 외진을 다녀오면서 본인에게 말하기를 고참한테 들었는데 환자실에 게이가 입실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본인에게 이야기 했다. 본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본인이 이○○ 일병에게 어떻게 아냐고 물었고, 이 일병은 (본인일 것으로 추정되는-내담자 주) 고참이 남자와 키스하는 사진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을 봤다면 문란했다는 표현을 섞어가며 이야기 해주었다고 했고, 이로 인해 본부중대가 떠들썩했다고 말했다.

2006년 1월 31일 의무중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유는 위와 같은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 꼭 복귀 할 테니까 휴가를 보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의무중대장이 이유를 물었고, 이○○ 일병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했고, 의무중대장은 그 자식이 누군지 영창 보내 버린다고 말했다. 본인은 그렇게 되면 일이 더 커지므로 제가 더 힘들어진다고 했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조용히 휴가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의무중대장은 상담하다말고 알았다며 나갔고, 곧바로 이○○ 일병에게 가서 성관계하는 사진 봤다는 고참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리고 본인 옆에 있는 다른 환자에게 본인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 감시 하라고 의무중대장이 명령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후 곧바로 오○○ 중사가 본인에게 와서 너 의무중대장에게 무슨 말을 했냐고 했고, 본인은 의무중대장에게 한 말을 그대로 오 중사에게 했다. 오 중사는 너 사진은 사단에 한 장 가 있고, 현병대에 하나 가 있고, 내 책상에 하나 있는데 내 책상은 자물쇠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냐고 욕박질렀다. 본인은 나는 잘못 한 게 없고 들은 것만을 이야기 했는데 내가 왜 오 중사님께 이렇게 혼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오 중사가 너 왜 설치냐고 말했고, 본인은 그럼 그런 이야기 듣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거냐고 했다. 지금 너 전역시키려고 사단하고 싸우고 있는데 자꾸 죽고 싶다는 이야기하고 설치냐 어떻게 너를 전역 시키느냐고 했다.

이에 본인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는 환경이기에 왜 배려를 해 주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다 듣고 알면 나는 여기서 하루도 살 수 없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중사는 그럼 너 자대로 갈래라고 했고, 이에 본인은 자대로 보내달라고 했다. 단 하루도 여기 있기 싫다고 말했다. 오 중사는 부대에서 네가 자살 할까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본인은 여기 있으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오 중사는 그럼 너 정신병원에 처넣어 줄게라고 말했다. 이에 본인이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나가려던 오 중사가 발로 문을 차며 너 왜 이렇게 까부느냐고 말했고, 이후 차렷 자세와 앉았다 일어서를 두 번시키며 입 다물고 내 눈 쳐다 봐 라고 하며 아구창을 날려버리겠다고 했고, 남자새끼가 왜 그러냐 너 여자야라는 말을 했다. 본인은 지금 중사님에게 이렇게 혼나는 것 보다 밖에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힘들다. 중사님은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본인은 여기에 어떻게 있냐고 말했다.

본인은 신병교육대에서 자대배치를 51연대 3대대로 받았으나 단 한번도 자대에 가본 적이 없었고, 51연대 의무중대 환자실에서만 지내던 중 위와 같은 일이 터진 다음날인 2006년 2월 1일에 51연대 2대대로 전출 갔다. 전출 가서 대대장과의 면담에서 너 동성애자냐라고 물었고,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럼 그거 말고는 자대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겠네라고 말했다.

소대 배치 이후 선임병들이 각 잡고 앉아 있으면 본인의 성기 위에 손을 올려놓으라고 말하고, 어디 있다가 왔냐라고 물어서 51연대 환자실에 입실 해 있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선임병이 뭐 임신했다고 남자새끼가 어떻게 임신하냐며, 애 아빠가 누구냐고 했고, 다른 선임병 두 명이 본인 앞에서 다른 선임병의 성기를 만지면서 본인에게도 만지고 싶으면 만지라고 이야기 했고, 또 다른 선임병은 너 누구냐라고 물어서 전입왔습니다라고 하니 그래 앞으로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임병은 눈이 마주친 본인을 보며 충구를 쑤시며 좋아라고 말했다. 2월 2일경 일석점호 시간에 당직사관이 1월 31일 어떤 동성애자 이등병이 보자기로 목을 매고 죽었다며 주의 차원에서 이야기 했으나 이를 듣고 있던 내부실 병사들은 다들 비웃었다. 본인은 동성애자가 자살했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이를 듣고도 태연하게 비웃는 내부실 병사들을 보면서 막사에 불을 확 질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사례 2]

2000년 여름, 군입대후 1달 정도 지나지 않아 중대장과 함께 면담을 하는 동중 본의 아니게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다. 내부실 내부에서 소심하다, 여성스럽다, 조용하다는 이유로 관심 병사가 되었고, 뒤이은 중대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짜증스럽고 집요한 질문에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나는 중대 의무대에서 상담을 받았다. 곧이어 덕정 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되었다. 원래는 간단한 상담만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거의 반강제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 병원에서의 생활은 거의 악몽과도 같았다. 군의관과의 상담 도중 심한 구타를 당한 것은 물론, 수치심을 들게 하는 질문들-특히나 남성과의 성관계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에 관한 강제적인 질

문-과 위생병들의 노골적인 농담-희장실을 두개 쓸 수 있어서 좋겠다 등의 - 에 많이 힘들었다. 그 이후, 다시 창동병원으로 후송. 그곳에서 일주일간 독방 생활을 하고, 다른 환우들과 다른 침상을 사용하는 등 동성애자로서 많은 차별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처우를 받았다. 다시 국군대전통합병원으로 후송.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쏟아지는 수치심 유발 질문들은 끝나지 않았고, 언제나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감시를 받아야 했다. 군의관은 ‘게이 같지 않은’ 외모라면서 근 1년 동안 여러 병원을 돌게 한 뒤 다시 자대로 복귀시켰다. 자대에서의 생활 역시 마찬가지였다. 행보관과 중대장 등이 나의 병영생활 일 거수 일 투족을 감시했으며, 심지어 다른 병사를 동원해 감시를 당해야만 했다. 부대 내 성범죄 사고 유발자로 낙인찍힌 나는 언제나 감시 속에서의 생활로 인해 언제나 심신이 지쳐있었다. -친구사이 회원 증언 -

[사례 3]

1998년 9월 입대한 해 이등병 시절,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오는 편지를 뺏어 읽는 일로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주변 병사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싫었고 결국 탈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곧바로 복귀를 해 큰일은 없었지만 부대원들이 대부분 알게 되었다. 사고이후 생활이 더 힘들어져, 자의반 타의반으로 창동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1개월 보름정도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처음 후송되던 날 안경을 뺏기고 옷을 벗고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발로 구타당하며 ‘호모가 왔다’라는 식의 욕설을 들어야 했다. 3일간 독방에서 가부좌 자세로 격리되었다. 이후 격리가 풀려도 낮과 밤의 생활은 다른 환우들과 달랐다. 낮에는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고 밤에는 혼자 독방에서 자야했다.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 약을 매일 먹고 강제로 HIV검사도 받았다. 상담을 따로 받은 적은 없다. 단지 군의관이 취한 치료는 모든 환우들이 함께 오진 점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맘에 드는 간호장교 없냐, 제대하고 싶으면 누구 한명 건드려라’ 라는 식의 말 뿐이었다. 내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모님께 알려진 것이었다. 부모님께 말을 해야 한다는 병원원칙에 나의 부탁은 완전히 묵살되었고, 병원에 면회를 오실 때마다 울고 가시는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병원생활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병전역이 되지 않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관을 그대로 군의관에게 이야기했고, 그 후 자대 복귀 판정이 났다. 그렇다고 자대 복귀 후 생활이 원만했던 것은 아니다. 병원까지 다녀온 사람이라 관심병사 1호에 등록되었으며 경계근무에서도 제외시키려 했다. 가까스로 만기전역을 하였지만, 복귀 후 생활은 불안과 초조의 연속이었다. 자신을 어떻게 볼까하는 불안한 마음과 함께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가해의 책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연일 불안했다.

2. 해당가해 사단의 문제점과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

피해자의 경우 인권단체들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 그리고 열린우리당 임종인 국회의원 등의 발 빠른 대응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빠른 조사 등으로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방지하였고, 동시에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지만, 가해부대 사단장의 말 바꾸기로 인해(처음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직후 임 모 사단장은 피해자 아버지께 “모든 것이 부하들의 잘못으로 인한 불찰이며, 휴가에 대한 연장조치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전역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는 등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했으나 이후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며 선 복귀 후 전역이라는 원칙하에 가해자로 지목된 다수의 간부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니 복귀한 후 헌병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힘. 당시 피해자는 주요우울증 장애, 대인기피증세, 수면장애, 자타해 위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증 등으로 인해 부대 복귀를 할 경우 매우 위험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고, 아주대학병원 이영문 교수의 입원권유에 따라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가해사단은 미복귀 시 군사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행범으로 검거 할 것이니 신병을 인도하라는 협박성 내용의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 앞으로 발송함. 이후 인권단체 및 최순영 국회의원의실과 해당가해사단의 힘겨운 논쟁 끝에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피해자를 이송하는데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군의관의 소견과 정밀진단 후 전역조치를 받음. 하지만 피해자는 전역조치를 받고 사회로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속적인 외래진료를 받고 있으며, 수면장애 및 주요우울증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에 있어서 육군본부 인권교육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건에 대한 권고 결정문⁵⁾에서 인권침해 가해간부 15명 중 6명에게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나머지 9명에게는 인권교육을 받게 할 것을 주문하였다. 권고 이후 주의조치는 이루어 지지 않았고, 육군본부 인권개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가해자 15명에 대한 인권교육에서 비전문가이며 인권교육의 대상이기도한 육군본부 인사처장이 인권교육을 책임지는 강사역할을 했으며, 교육 커리큘럼도 없는 상태에서 립서비스 수준의 교육을 한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집 확인 결과 드러났다. 더더욱 문제는 인권교육을 받은 가해자들의 반응이다.

5)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권고결정문, 사건번호 06진차87, 사건명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인 임태훈

국정감사 자료집을 살펴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나 사과는 커녕 이번 사건을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을 인권침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식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불신하거나 억울한 사람에 대한 조사로 받아들이고 있고, 국가인권위의 권고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군복무 기피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성애자를 군 입대 부적격자 내지는 전투력향상에 상당한 장애가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반응은 최소한 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조차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는 것이며, 가해자들의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객관적 사실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에 의해 실시한 육군본부의 인권교육은 그 근본부터가 문제이며, 교육효과도 전혀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밀 진단이 요구되며, 가해자들이 참여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결국 인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권교육과 특히 성적소수자 인권에 대한 침해인 만큼 동성애자 인권 전반에 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 내용은 육군 본부가 실시한 가해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내용과 가해자들의 반응이다.

1) 육군본부 인권교육 내용

가. 육군에서는 지휘권이 확립된 가운데 개인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나. ○○사단 사건을 계기로 동성애관련지침과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인권문제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음

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지휘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간부스스로도 변화해야 함.

라. 동성애자 관련 육군지침 교육

마. 차후 이번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경우에는 오늘교육을 기초로 변화된 대응과 새로운 자세로 인권에 대해서 접근해 주길 바람.

2) 가해자들의 반응

가. 군 명예에 누를 끼쳐서 죄송함. 이 사건을 계기로 병사를 어떻게 지휘해야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음.

나. 관련자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를 받는 경우가 없으면 좋겠음.

다. 인권위 조사활동 시 권위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동석하여 피조사자의 소신 있는 진술여건 조성과 진술 내용이 가감 없이 전달 될 수 있어야겠음.

라.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진술한 내용 위주로 반영되어 있고, 관리하는 간부들이 진술한 내용 반영은 미흡한 실정임.

마. 군 복무를 기피하는 병사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바. 군 복무 인원은 감소하더라도 부적격자에 입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전투력 향상 및 유지에 기여할 것임.

4.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관련 국방부 장관에 대한 권고결정

1) 군대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사단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와 함께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3가지를 이행 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피해자가 자대에 배치 받아 복무하면서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군대 내에 성적비하나 모욕, 수치심 자극 발언에 대해 사병들을 각성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대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문은 너무도 추상적이다. 이미 국방부 및 육, 해, 공군 등은 군인의 성 인지력 향상 교재를 통해 군대 내 성희롱 및 각종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강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 [군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위해 군의 각 교육기관을 방문조사 한 결과 각 중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내용에서 남성간 또는 동성간 성희롱 내지는 성폭력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인권위의 성희롱 예방교육 권고는 동성간의 성희롱 및 성폭력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만 군대 내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동성애혐오증을 방치한 가운데 남성간 성폭력만을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2)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의 시급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문은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군복무상 제한 및 차별

을 금지하고, 성적 지향에 대한 조사 및 공개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여,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에 기초한 보호정책과 부적합처리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국방부가 동성애자에 대한 법률과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특히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하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내용임에 틀림없다. 균형법상 동성애적 애정관계에 기반한 성행위이건 서로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남성간의 섹스인간 간에 이를 범죄시 하는 법률이 존재하며 동성애자를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보고 있는 국방당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에게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국방부에게 떠넘김으로써 의무를 방기하라는 지적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국방부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국방부의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전면개정의 필요성

2006년 4월 1일 자로 시행되고 있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성애자의 군복무와 관련해서는 차별과 인권침해의 예방이 핵심사항이므로 첫째, ‘관리지침’이 아닌 ‘보호지침’으로 변경할 것, 둘째, ‘동성애자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한다’는 지침의 목표를 수정 할 것, 셋째, 성적지향에 대한 조사금지 및 공개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인성검사를 통해 동성애 성향 잠재자로 밝혀지면 보호 및 관심병사로 지정 집중관리 하겠다’는 내용을 수정할 것, 넷째, 개인의 성적지향을 국가가 개입하여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이성애자로의 전환 희망 시 적극 지원 하겠다’는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문에서 밝히고 있다.

‘관리’라 함은 동성애자를 군의 지휘권 확립이나 전투력 향상에 대한 걸림돌 내지는 저해의 주된 요인으로 취급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은 앞서 살펴본 15명의 가해자에 대한 인권교육 이후 반응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군 전반에 깔려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무지를 스스로 커밍아웃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금지하지 않는 캐나다, 이스라엘, 호주 등의 국가의 경험에 의하면 동성애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군전투력의 손실이나 기강해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⁶⁾ 따라서 ‘관리지침’은 ‘보호지침’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타당하다.

그 밖에 동성애자의 병영 내 유입 및 확산의 차단 대책과 동성애 성향 잠재자를 관심병사로 지정하도록 한 관리지침은 폐기 되어야 한다. 미국의 예는 이러한 관리지침이 엉터리라는 것을

6) 이호중,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금지와 보호정책] 중 국방부의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에 대하여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미 국방당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력을 최상으로 높이기 위해 군 내 의료기관에 군인으로 부적절한 사람(이중 동성애자도 포함)들을 가려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역사학자 엘런의 설명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은 결과적으로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연결될 수 있는 조직망을 더 넓게 만들었다. 군대의 반동성애적 장치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새로운 형태의 감시와 처벌이 광범위하게 만들어 질수록 말이다. 예전에는 성적인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법정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들만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단지 동성애자이거나 그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올라미에 걸려들게 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에게 병자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었으며, 원치 않더라도 제대를 시켜 병영에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 새롭고 더 광범위해진 정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동성애자 억압제도가 개발되어야 했다. 모든 신병들에게 그들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물었고, - 그렇게 하는 것은 1993년까지 중단되지 않았다 - 만약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그는 군대에서 거부되었다. 동성애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한 새로운 기관들이 설치되었으며 특별 치료 시설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이나 성격적인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제대 제도가 발전했다. 이러한 제대는 파란 제대라고 불렸는데 그 이름은 불명예제대 통보서가 파란색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의생당한 사람들의 수는 급증했다. 9,000명 이상이 전쟁 중에 동성애와 관련된 혐의로 불명예 제대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군대의 이러한 반동성애적 정책은 동성애에 대한 일반 사회의 침묵을 깨는데 많은 공헌을 했음을 인정할 만하다. 새로운 규칙은 집요한 질문과 조사와 구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군인들의 의식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⁷⁾ 이러한 탄압은 이전에 흩어져 있던 미국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연대의식을 불어넣었으며 이는 향후 발전하여 동성애자 인권운동으로까지 발전하였고, 1993년 정치적인 구호로써 약 2,000,000명이 참가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으로 이어졌다. 워싱턴 행진의 첫 강령은 “우리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와 성전환자의 권리헌장의 제정을 요구한다. 또한 군대를 포함한 주정부와 국가에 의해서 행해지는 차별의 종식을 요구한다. 합의된 성인들 사이의 개인적인 성행위를 범죄화시키는 모든 법조항들의 무효화를 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 군형법 제92조 계간죄의 폐지 필요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호

7) 최이연, [역사속의 성적소수자], 1999, 이연문화, 131쪽

중은 “계간이라는 용어, 더 나아가서 추행이라는 용어는 동성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동을 비하하는 용어로 그 용어 자체도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⁸⁾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민국형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행동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군형법은 합의된 성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가질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호중은 이에 대해 “추행죄 처벌규정은 군인이라는 신분에서 동성간의 성적 행동이 군의 전투력보존이나 군기유지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인정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1월 9일 NAP⁹⁾ 권고를 통해 군형법 제92조와 군인사법시행규칙이 동성에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고 있어 개정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래 사례를 통해 군대 내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1] 상호 합의하에 남성간 성행위를 한 사례

피의자 상병 A는 소속대 유탄수직에 근무하는 자로서, 2006년 6월 초순 일자불상 23:30경 경기도 ○○시 ○○읍 소재 ○○대대 ○○중대 0소대 내무실에서 같은 피의자 상병 B와 함께 상호 성기를 만지다가 흥분되어 실내 화장실로 이동하여 같은 피의자 상병 B 동의하에 상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같은 피의자 상병 B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약 3분간 성행위를 하는 등 1회 계간을 한 사실임.

피의자 상병 B는 소속대 자동화기사수직에 근무하는 자로서, 2006년 3월말 일자불상 17:00경 경기도 ○○시 ○○면 소재 소속 대대 야외 화장실에서 같은 피의자 상병 A의 성기를 약 5분간 만져 추행을 한 후, 재차 경계지원근무(2006. 4. 17-7.3)중인 5월 초순에서 5월 말 경기도 ○○시 ○○읍 소재 ○○대대 수색중대 1 내무실에서 같은 피의자 상병 A의 성기를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추행하고, 동년 6월 초순 일자불상 23:30경 ○○대대 수색중대 실내화장실에서 같은 피의자 상병 A의 동의하에 상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같은 피의자 상병 A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약 3분간 성행위를 하는 등 1회 계간을 한 사실임. 두 병사 모두 기소유예와 15일 징계입창.

[사례 2] 상호 합의 하에 이성과 성행위를 한 사례

징계인 하사 A는(여성) ○○기계화보병사단 ○○대대 ○○○○○장비 출납관인바

8) 이호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금지와 보호정책]

9)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영문약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문명칭은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가의 인권정책에 대한 청사진(master plan)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계획임. 인권상황과 개선 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인권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2006년 7월 1일 23:00경 ○○회관 노래방에서 민간인 친구 구○○(여) ‘관리병 2명과 함께 소주2병, 맥주 2병을 나눠 마시고, 1시간 후 2006년 7월 2일 00:00경 ○○회관 2층 특2호실에서 위 3명과 소주 1병을 나눠 마시면서 술에 취하여 관리병 중 1명인 병장 천○○과 위 구○○이 키스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도 병장 박○○과 키스를 하였고, 2006년 7월 2일 03:00경 ○○회관 관리병실에서 병장 박○○과 약 10에서 20분간 키스와 애무 등을 하여 각 명정 추태와 성적문란행위를 한 비행사실임. 하사는 정직 1개월, 5분의 1감액. 병사 1명에 대한 영창 처분. 나머지는 비리혐의로 수사중.

위 사건들은 군대 내에서 남성간, 남녀간 성행위를 함으로써 처벌된 사례이다. 사례 1의 경우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 군대 내에서는 합의된 남성간의 성행위를 법률적으로 표현할 단어가 추행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사례 2의 경우 누가 보아도 사건이 축소 조작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사례 1과 사례 2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사례 1의 경우는 두 병사가 동성애자가 아닌 상황적인 동성애(situational homosexuality)를 했음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아 원리원칙과 함께 동성애 혐오증이 헌병수사관들의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례 2의 경우는 남녀상열지사 등의 이유와 징계자가 부사관임을 가만히 헌병수사관들의 봐주기가 일정정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적인 문제는 이러한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고 있는 군의 여러 가지 법률들이 성적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대 내에서 일정정도 성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따라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 상황적인 동성애(situational homosexuality)¹⁰⁾와 동성애를 혼돈하지 말아야

서동진은 “군대에서 많은 이들이 성폭력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폭력은 동성애자간의 성폭력이 아니라 ‘상황적인 동성애’에 따른 경우가 많으며 이런 폭력의 피해자는 동성애자가 될 경우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적인 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 2001년 남성간 성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도소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가해자라는 통념은 근거가 없다. 강간의 가해자는 전형적으로 자신을 이성애자로 보고 있으며 감옥을 벗어나면 이성애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

10) 서동진,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2006. 239쪽 (김동춘, 한홍구, 조효제 역음)

고 밝혔다. 동성애자의 경우 교도소에서 다른 수인들보다 훨씬 더 성폭력에 희생될 가능성이 크지만 성적 학대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¹¹⁾ 군대 내 남성간이나 이성간 성폭력에 대해서 가해자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해온 넬슨은 이런 빈번한 성폭력 발생은 성적욕구의 표현이 아니라 폭력적 기능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성욕을 풀기 위한 욕구가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심을 주려는 폭력적 지배욕구에서 나온 행위로 본 것이다.¹²⁾

남성간 강간 피해자의 경우는 피해자로 나설 경우에 여러 종류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첫째, 남성적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의심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해 존프레블과 니콜라스 그로쓰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사회는 남성을 키우는 과정에서 독립심, 자립심을 최고의 가치로서 놓게 된다. 남성은 약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이유로 남에게 피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배운다. 위협에 처하면 남자들은 스스로 싸워나가야 한다고 배웠지 남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기대 받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어느 날 남성이 성적으로 이용당했을 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정복되지 말아야 할 그의 신체 한 부분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 남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약점을 노출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폭력을 당한 후 동반되는 이런 심리적 기제들은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는 것을 방해한다.”¹³⁾ 둘째는 “남성간 성폭력의 피해자로 나설 경우 동성애자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두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군대의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넬슨은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동성애자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¹⁴⁾

7. UN 국제인권법과 국제적 동성애자 인권

1994년 유엔자유권조약위원회¹⁵⁾(United Nation Human Rights Committee)는 Toonen v.

11) Human Rights Watch United States, Predators and Victims, No Escape male Rape in U.S. Prisons, 2001, hrw.org

12) T.S. Nelson, For love of Country, Confronting Rape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U.S. Military.

13) John M. Preble & A. Nicholas Groth, Male Victims of Same-Sex Abuse : Addressing Their Sexual Response, 2002, p.4.

14) T.S. Nelson, For love of Country, Confronting Rape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U.S. Military.

15) 유엔자유권조약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Australia 사건에서 “동성 또는 이성간의 구강 및 항문성교와 남성간의 모든 성행위를 금지하는 테즈메니아(Tasmania) 법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7조 제1항과 제2조 제1항을 위반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의적인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개인적으로 동의한 성인간의 성행위는 프라이버시에 해당한다. 테즈메니아법은 수 십년동안 실행되지 않았을 지라도 미래에도 유효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Toonen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그 침해가 자의적이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합리성 심사를 적용하였고, 이 심사기준에서 합리성의 조건은 어떠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도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위원회는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모든 법은 테즈메니아의 도덕성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유럽공동체협약(제13조)은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함.

유럽평의회의회(Th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는 유럽 각국에 동성애자 차별금지, 학교·의료기관·군대·경찰 등의 동성애 혐오태도를 바꿀 수 있는 교육 실시, 동성커플을 합법화하는 법률 제정 등을 요구함(2000년)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동성애문화를 차별하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권고함(2002년)

미국 뉴욕 주는 성적지향차별금지법(SONDA)을 제정하고(2002년), 하와이 주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혐오범죄가중처벌법을 제정함(2001년)

Political Rights 줄여서 ICCPR이라고 명칭하기도 함) 이 위원회는 유엔총회 산하 기구이며 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선출은 조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추천된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재선이 가능하다. 위원회의 기능은 ICCPR의 제28조에서 제45조 및 제1선택의 정서(First Optional Protocol)에 잘 설명되어 있다. 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보고서제출제도(National Reporting)다. 이 제도는 조약 체결국이 ICCPR을 잘 준수하고 있고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5년마다 한번씩 제출해야 하며 한국정부는 올해 10월 경 제출하였다. 둘째 일반의견(General Comment)는 국가보고서제출제도 이외에 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일반적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로 ICCPR의 해석과 적용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발표한다. 셋째, 개인통보제도(Individual Communication)는 인권침해를 당한 개인이 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다.

프랑스는 동성애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범죄와 성차별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함(2004년)

영국과 미국은 강간죄 성립을 사람간의 질 성교 및 구강 또는 항문성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을 정비하고, 독일은 형법을 개정하여 강간죄에 유사성교행위를 포함시키고 범죄의 객체 규정도 남성 및 배우자를 모두 포함시킴.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 공군이 동성애자인 장교의 임용을 거부한 사안을 동성애자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결하였고(2003년), 이후 영국 공군은 동성애자 장교의 임용을 허용함.

호주는 국제인권법규를 국내법에 반영하는 일련의 입법과정에서 1992년 군대 내 동성애금지 정책을 폐기하였다. 1992년 국방부의 “차별, 희롱, 성범죄, 동성애 기타 금지행위에 관한 국방부 지침(Defense Instruction on Discrimination, Harassment, Sexual Offences, Fraternisation and other Unacceptable Behavior)”은 금지되는 행위에 관하여 동성애와 이성애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은 문제되지 않으며 제재가 가해지는 행동은 군전투력과 군기유지를 훼손하는 성적 행동이나 하관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이다.¹⁶⁾

이스라엘과 캐나다도 일찌감치 동성애 군복무금지정책을 폐기한 나라들이다. 이스라엘은 Knesset 청문회 이후 1993년 6월부터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도 1992년 법원에서 동성애자의 군복무금지가 캐나다 인권헌장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잇따른 후에 동성애자 군복무금지를 해제하였다.¹⁷⁾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국가는 미국, 터키, 러시아, 폴란드 등 몇 나라에 불과하며, NATO 회원국 중 24개국이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자유권규약에 따른 보고서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정부보고서 심의를 받기 위해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방부(인권팀, 국제인권법담당법무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한국정부대표단(18명)을 제네바로 파견하였다. 주요 심의 내용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 대테러법안 관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여성 군복무, 군 형법상 계간조항과 동성애자

16) 이호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금지와 보호정책]

17) 위의 논문

군복무,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 관련, 공무원의 단결권 관련 새 법안 등에 대해 한국정부대표단에게 집중적인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군과 관련된 사안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동성애자 군복무문제와 계간 조향, 여성 군복무 등에 관한 질문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용어로 풀어가는 동성애

▪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 성적매력을 느끼는 방향. 성적지향이란 특정한 성별의 상대에게 성적, 감정적으로 관심을 나타낸다는 뜻. 성적 지향의 대상을 성별에 따라 분류하면 여성, 남성, 양성, 무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성애자 여성과 게이 남성은 동일한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음.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국가의 동성애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및 차별은 '성적자유(sexual freedom)'에 대한 기본권 침해 및 차별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성적자유에서 문제되는 많은 논점들은 성적지향성을 이유로 한 기본권의 침해 및 차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아기호증(paedophilia), 근친상간, 매춘, 포르노그래피, 가학적 또는 피학적 성욕(sado-masochism) 또는 일부다처제 등이 관련된 성적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는 그 자유를 제한 및 침해 할 수도 있다.¹⁸⁾

▪ 성 정체성 (sexual identity)

- 자신과 다른 사람이 인식하는 성적지향. 성 정체성은 이러한 성적 지향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적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적 주체성을 성립시키는 상태를 말함. 즉 자신의 성적인 관심의 대상을 스스로 확인하고 긍정하며, 그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을 꾸려 가는 출발은 성 정체성의 확립에서 시작됨.

▪ SEX

-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 태어날 때 부여 받은 천부적인 성. 주로 성 염색체에 의해 구분되어지는데, 남성과 여성이 대부분임. 현재까지도 성 정체성 구분은 주로 이 생물학적 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즉 다시 말해 세상의 인간은 남자와 여자 둘로 구분되어지고, 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을 정상이라고 여김.

18) [동성애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강달천, 2000, 중앙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9쪽.

▪ **Sexuality**

- 섹슈얼리티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자신의 성적 지향을 나타내는 용어임. 즉 자신과 같은 성에게 성적 지향성을 둔다면 Homosexuality이고, 이성에게 성적 지향성을 둔다면 Heterosexuality이며,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성적 지향성을 둔다면 Bisexuality이다.

▪ **Gender**

- 젠더는 사회적, 문화적 성을 가리키는 말. 사람에게 규정되어진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의미의 성 구분. 예를 들어 트랜스 젠더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부정 내지는 거부함. 다분히 이 용어는 남성우월주의에 의한 성 역할 구분에 반발하는 의미로 확산됨.

▪ **동성애와 동성연애**

- 동성애는 같은 성을 사랑하는 성적 정체성을 지칭함. 즉 동성애는 남성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남성을 사랑하거나,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여성을 사랑하는 것을 말함.

- 일반인들이 자주 쓰는 동성연애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동성에게 지속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애정관계가 아닌, 단지 동성 간의 육체적 결합만을 지칭함. 즉 동성연애란 용어에는 동성 간에는 이성애 같은 총체적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애정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음. 그럴 경우 이성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한 동성애적 행위도 동성연애로 불러야 함. 동성연애나 동성연애자는 동성애의 성 정체성을 부정하는 언어로 동성애자를 폄하하는 용어임.

▪ **호모 (Homo)**

- 호모란 용어는 원래 19C 말 헝가리 의사가 그 이전의 동성애를 종교적 또는 도덕적으로 모멸하는 용어(sodomy 등)를 대신하여 의학적으로 고안해 낸 용어. 즉 병리학적 인식으로 만들어진 용어. 그러나 산업화 이후 동성애자 탄압이 시작되면서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모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함.

▪ **게이 (Gay)**

- 자신의 성 정체성을 동성애자로 인정하는 남성. 게이라는 용어는 호모라는 용어의 차별성에 반대한 동성애자들이 어두운 동성애자의 이미지를 벗고, 밝은 이미지의 기쁨이란 의미에서 사용하기 시작함. 원래는 남성, 여성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했으나, 지금은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함.

▪ 레즈비언 (Lesbian)

- 레즈비언은 여성 동성애자를 지칭함.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여성 시인 사포가 자신의 여제자들과 살았던 레스보스 섬에서 유래한 단어.

▪ 트랜스 젠더 (Trans-gender)

- 트랜스 젠더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총칭함. 성전환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므로, 외모나 복장으로 구분되어 지는 것은 아님.

▪ 양성애자 (Bisexuality)

- 성적 지향이 동성과 이성 모두를 향하는 사람. 양성 모두에게 성욕을 느끼는 사람.

▪ 무성애자 (Asexual)

- 무성애자는 남에게 강렬한 매력을 느껴도 이를 성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열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성적 자극을 받는 경우가 극도로 적거나 없다. 이들은 성적인 욕구가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 또 금욕주의자나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하고 성에 눈을 뜨지 못한 이성애자나 동성애자와는 전혀 다르다. 예컨대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성적 욕구를 느끼지만 섹스 자체가 즐겁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성애자라고 보기 어렵다.

▪ 이성복장선호자 (Cross-dresser)

- 이성복장선호자는 성적 지향과는 관련이 없다. 드랙 퀸이나 킹(Drag-queen, king)은 남녀 동성애자들이 이성 복장을 입고, 일종의 유희를 벌일 때 자주 쓰는 용어이고, 이성복장선호자나 트랜스 베타이트(Trans vetaite)는 이성복장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이나 성적 흥분을 얻는 자들이다. 이들 이성복장선호자들은 대부분 이성애자들일 경우가 많으며, 동성애자나 트랜스 젠더와 동일 시 해서는 안 된다.

▪ 이반과 퀴어 (Queer)

- 두 용어 다 이성애를 제외한 모든 성적 소수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반은 한국의 종로 낙원동에서 시작된 말로 일반과 대칭되는 의미. 퀴어는 원래 “이상한, 괴상한”이란 의미이나 성적 소수자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드러내는 용어 쓰임.

9. 커밍아웃

커밍아웃은 (coming out of the closet - 벽장 속에서 나오기)의 축약이라는 데서 보여지듯이 동성애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외부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뜻함. 동성애자들이 억압받는 현 시대에서 동성애자들이 자아를 형성하고 표출하는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여김. 그러나 커밍아웃은 억압받는 사회 현실에서 개인적으로는 간단치 않은 일이므로 많은 준비가 필요함. 억압받는 현실에 저항하거나 저항 할 준비가 되었다는 일종의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개인적 커밍아웃

-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식하고 이를 긍정하는 것.

사회적 커밍아웃

- 가족, 친구, 친지 등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리는 것.

정치적 커밍아웃

- 불특정다수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리는 행위. 대중 집회나 각종 시위 등.

10. 이성애주의와 동성애공포증

■ 이성애주의(Heterosexuality)

- 이성애가 다른 모든 성적 지향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모든 사람이 이성애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는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성적 소수자들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이데올로기로써 이성애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동성애 공포증을 조장하기도 함.

- 강달천은 자신의 논문에서 “성적지향성을 이유로 한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첫째, 기본적으로 누가 이러한 침해를 받으며, 둘째, 침해를 받는다면 그 사람 삶의 어떠한 부분(영역)에서 그 침해의 영향을 받는가 하는 문제이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의 질문에 대하여는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한 기본권의 침해 및 차별은 배타적으로 동성애자를 상대로 이루어진다고 답할 수 있다.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모두 성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동성애자의 성적지향성만이 그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적

지향성을 동성애자에게만 있는 독특한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성적지향성은 개인에게 중립적이고 표면적인 특성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이성애자도 동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성적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하고, 이성애자의 성적지향성만이 인정되고 동성애자의 그것은 진정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은 동성애자의 기본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을 주목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⁹⁾

▪ 동성애 공포증 또는 혐오증 (Homophobia)

- 동성애자에게 가지는 편견. 동성애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논리적 배경 없이 또는 정체적 목적으로 동성애자를 억압하거나 무작정 두려워하는 태도. 이러한 공포증이나 혐오증이 도를 넘어서면 혐오범죄로 동성애자에 대한 테러를 가하기도 함.

11. 동성애원인론

-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의 원인에 관심을 드러내고 고민을 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원인에 몰두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받고 있는 소외와 억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선천적 원인론 (생물학적 원인)

- 유전설(세포유전학), 호르몬설(내분비계), 뇌구조설(신경해부학)

▪ 후천적 원인론 (학습이론적, 정신분석학적 원인)

- 동성과의 만족스러웠던 경험이나 이성과의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이 동성애를 선택하게 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킨제이 학파들이 대표적 연구 집단인데, 그들은 어릴 때의 의식적, 무의식적 성경험이나 기숙사, 교도소, 군대 등에서의 동성애적 경험이 동성애적 행동을 강화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행동주의 이론가들은 동성애를 잘못 학습된 결과이므로 학습과 훈련으로 동성애가 교정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전기충격, 혐오 연상 등의 치료법이 대표적이다.

결론 : 이성애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동성애의 원인을 밝혀 동성애가 이성애와는 다른 차원의 성행위로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치료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동성애 원

19) [동성애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강달천, 2000, 중앙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0쪽.

인을 묻는 자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동성애 탄압의 빌미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성애의 원인을 묻지 않는다면, 동성애의 원인도 물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12. 동성애 억압의 역사

▪ 역사적 사실

- 동성애의 역사는 우리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매우 오래 되었다. 인류에게 있어서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시기 이후부터 동성애라 할 수 있는 것이 계속 존재해 왔다.(여기서 동성애라 할 수 있는 것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현대 이전에는 동성애란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칭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동성애란 용어를 사용하겠다.)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상당히 관용적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성에 대한 역사는 철저히 이성애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 역사를 바로 보고, 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동성애자의 자긍심 형성에 영향을 줄뿐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에 다시 빠져드는 것을 막아 줄 것이다.

▪ 동성애 억압의 시작

- 억압적인 의미에서 고안된 동성애란 말이 생겨난 것은 19C 후반. 19C 이전에는 동성애자가 없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동성애적인 행위들과 인식들은 있었지만, 그것을 동성애라 특정짓지는 않음. 이성애와 동성애는 모두 에로스로 통칭되었으며, 동성애적 행위만이 터부시된 것이 아니라, 이성애적 성행위의 일부까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적인 행위가 모두 터부시 됨.

▪ 고대 그리스와 로마제국 시대

- 고대 그리스에서는 동성애를 교육의 방편으로 삼았으며, 특정 관계의 동성애를 최고의 사랑으로 추앙하기도 했다. 소크라테스의 경우와 사포의 경우는 당시의 사회상을 드러내주는 좋은 예이다.

- 초기 로마 제국은 동성애자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로마의 종교나 법, 모두 동성애에 대한 성욕을 이성애에 대한 성욕과 다르거나 저속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서구 문화의 시초라 여겨지는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동성애 혐오적인 태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 시대에도 동성애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소수였지만, 그들은 동시대의 사람들과부터 성적 지향 때문에 비도덕적이라거나 위협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요컨대 동성애자들은 로마의 사회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었다.

■ 동양에서의 동성애

- 중국에서는 동성애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로막았다거나 하는 보고는 없다. 일본의 경우 사무라이 사이에서 동성애와 관련한 규약을 따로 정할 정도로 관용적이었으며, 한국은 궁중에서 동성애를 칭하는 은어를 쓸 정도였으며, 화랑과 남사당이 동성애 관계를 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전 문학 작품과 민담 등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로써 동성애는 등장한다. 중국의 대표적 소설 ‘홍루몽’, ‘금병매’ 등에서 동성애는 이성애적 행위와 거의 동일한 사랑의 기치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문학작품도 마찬가지다. 홍명희의 대하소설 ‘임궏정’ 심지어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도 동성애적 행위는 비난과 억압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 중세 기독교 시대

- 기독교 사회는 현대 이전의 사회 중에서 몇 되지 않는 동성애에 대한 억압적인 사회였는데, 그 이유는 유대민족과 그리스, 로마의 세력관계와 유목민족의 특수성 등이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물론 기독교 사회가 과연 동성애를 배척하는 데에 적극적이었는지는 의심스럽다. 어떤 이는 구약 시대의 유대교 및 중세 기독교 사회를 예로 들지만,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사회의 동성애 억압은 동성애를 분리하여 특정 지어 억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식과 관련 없는 성행위 즉 낙태, 미혼모, 자위행위 등을 억압한 것이다. 유대교에 전통을 둔 기독교의 반동성애 정책은 구약시대 유대민족이 타민족과의 세력확장에서 필수적인 인구 증가 정책에 위배되는 모든 성행위와 남성 중심적 성애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 진다.

■ 산업혁명 이후 본격화 된 동성애자 억압

- 19세기 접어들면서 서구 특히 산업화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영국에서부터 본격적인 동성애에 대한 억압이 드러나기 시작함. 이때부터 영국에서의 한정적 모습 이기는 하지만 남성간의 성행위에 대한 극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늘어났다. 19세기 산업화와 자본주의 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동성애는 억압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것은 산업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가장 확실한 공급원이자 교육장인 가족제도에 대한 암적 존재로 동성애자를 파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3. 나찌의 동성애자 대량학살

- 최근까지만 해도 집단수용소(concentration camp-정규 교정체계 이외의 강제수용소)에서

죽은 게이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했다. 아직까지도 강제 수용되었다가 결국에는 수용소에서 죽게 된 수백만의 사람들과 함께 게이들도 히틀러의 희생자들 중 가장 악랄하게 박해받았던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부분적으로는 역사학자들의 동성애 혐오 때문이었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 게이 생존자들이 앞에 나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꺼려했던 이유는 동성애를 불법적인 것으로 취급했던(그리고 전쟁 전에 게이들을 체포하게 했던) 그 법 조항이 그 후에도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 강제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어떤 게이들은 실제로 ‘해방된’ 이후에도 수용소에서 감옥으로 곧바로 옮겨지기도 했는데 그것은 여전히 그들을 ‘범죄자’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수용소는 ‘감옥’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강제수용소에서 보낸 해는 독일의 형법 제175조인 반(反)동성애자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형량을 채운 것으로 계산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떤 동성애자 수감자들은 정규 교도소로 보내져서 그들의 형을 마쳐야 했다.

- ‘범죄자’로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게이 생존자들에게는 전후 독일 정부가 집단수용소 희생자들에게 지불했던 돈마저 지급되지 않았고, 게이들은 대부분의 집단수용소 기록에서 제외되었다. 게이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집단수용소의 중요한 부분은 몇 년 동안 쓰여 지지 않았다. 1970년대가 되어서야 집단수용소에서 게이가 겪었던 경험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마그누스 히르쉬펠트(1868-1935)는 1897년 동성애를 범죄로 보는 형법 제175조를 폐지시킬 목적으로 과학적 인도주의 위원회(Scientific Humanitarian Committee)를 창설했다. 1898년에 그는 이미 독일의 최대 정당인 사회민주당의 지도자인 아우구스트 베벨에게 독일 제국국회의 연단에서 형법 제175조를 반대하는 연설을 하게 했다. 철폐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 작가 토마스 만, 헤르만 헤세를 포함한 6000명의 서명을 모아서 진정서를 올리기도 했다. 히르쉬펠트의 작업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의 혼란 때문에 틀어지게 되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을 통치했던 민주국가인 바이마르 공화국 밑에서 그 힘을 되찾았다. 1919년 히르쉬펠트는 국가 성 연구소(Institute for Sex Research)를 설립했는데 그곳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성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모았다. 1921년에 그는 성 개혁 제1차 위원회를 조직했는데 그 위원회에 여러 나라에서 온 파견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위원회는 세계 성 개혁 연맹으로 발전했으며, 2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회원이 전세계에 걸쳐 13만 명에 이르렀다. 10년 쯤 지나자 형법 제175조를 없애려는 그의 작업은 그 이전보다 한 단계 나아갔으며 결정적으로 1929년 독일의회의 위원회 투표에서 이기고 난 후 승리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 그러나 독일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더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다.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초

(超)인플레이션과 1930년대에 있었던 대공황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독일 국민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이 민주주의와 바이마르 공화국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것을 히틀러와 나치당이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 했고 1933년에 히틀러를 수상으로 선출했다. 이것은 히르쉬펠트가 했던 운동에 있어서는 종말의 시작이었다. 나치들은 오랫동안 동성애에 대한 집단적인 적의(敵意)를 표현해 왔다. 그들은 동성애자를 전후 독일을 잠식시키는 부패한 무리들로 보았다. 1928년에 나치당은 형법 제175조를 철폐하려는 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들의 관점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나치당의 형법 제175조에 관한 성명서 전문

- 우리는 우리나라를 좀 먹는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기 때문에 당신들, 동성애자들을 거부한다. 동성애를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우리의 적이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나약하게 만들고 적들에게 놀림감이 되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거부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현실은 투쟁이며, 따라서 남자들이 서로 겨루는 것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역사는 동성애와는 정반대로 가르친다. 힘은 정당함을 만든다. 강한 자가 항상 약한 자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법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강해지기 위해서 준비하자!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한 가지 방법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 독일 국민은 단련하는 법을 다시 한번 배워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특히 동성애와 같은 모든 음란한 행태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 우리국민을 억압하는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 국민을 해방시킬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서 앗아가기 때문이다.

- 나치들은 일단 정권을 잡고 난 다음, 동성애자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시작했다. 1933년 2월 23일, 히틀러가 수상이 된 1월 30일에서 겨우 3주가 지나자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의 활동은 금지되었다. 6월 6일, 국가 성 연구소는 나치 암살자들에 의해 절멸되었다. (히르쉬펠트는 그때 해외에서 강의 중이었다. 그는 다시는 독일로 돌아오지 못하고 1935년 프랑스에서 사망하였다.) 1934년에 나치의 비밀경찰 게슈타포는 동성애자들의 명단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다. 1935년에 형법 제175조는 실제로 동성과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단지 그런 생각만 한 사람들까지도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당국은 이것을 ‘욕망 대상 응시’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형사상 고발될 수 있었다.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1938년에 이르러서는 형법 제175조에 따라서 체포된 사람들을 정경감옥에서 강제수용소로 옮기는 것이 합법화되었다. 1940년에 당국은 실제로 이 법을 어겨서 피소된 사람들을 수용소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이를 절멸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었던 것이다.

- 유대인이나 집단수용소에서 희생된 다른 집단의 경우처럼, 죽은 게이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형법 제175조로 희생된 경우가 대략 50,000명 정도일 것이고, 5,000

명에서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강제수용소로 보내져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5,000명에서 15,000명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를 그 이상으로 잡고 있다.

14. 근대 동성애자 운동의 출현

- 현대적 의미의 동성애자 해방운동은 18세기와 19세기의 유럽사회를 휩쓸었던 커다란 변화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어떤 역사가들은 동성애자들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미 집단 의식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하지만, 동성애자들이 눈에 띄는 정도의 정체적 집단으로 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 이후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동성애자 운동의 시작을 19세기 중반으로 보고 있다.

- 18세기와 19세기에 유럽과 미국은 산업혁명을 경험했다. 공장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들이 창출되었다. 예전에는 생존을 위해서 토지와 가족에 의존했던 개인들이 도시로 이주해 그곳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개인적인 활동의 자유도 증가했다. 농촌에서 억압을 느꼈던 개인들은 이제 도시로 이주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 이것은 자신의 성(性)과 같은 성(性)에게 매혹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했다. 우선 그들은 결혼할 필요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농촌에서는 개인이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 도시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게다가 한 장소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는 덕분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훨씬 쉬워졌다. 마지막으로 동성애적 행위를 잘 해낼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 농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도시에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서로를 알고 지냈고 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도덕의 전통적 버팀목인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으므로, 공연한 신경을 쓰던 친척들의 눈을 걱정할 필요 없이 자신의 동성애적 욕망에 따라 행동 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러한 억압의 근거를 위해 지배체제는 동성애를 억압하기 위한 소위 과학적 연구를 19세기 말부터 시작한다. 온갖 잘못된 편견과 오도된 임상 실험 속에서 동성애자는 이 사회에서 격리되고 없애야 될 정신병자로 취급 받음. 아울러 지금까지 철학에서나 다루어지던 인간의 성은 과학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함. 과학은 이성애 이외의 소수의 성적 지향성을 비정상적으로 간주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치료하기 위해 봉사했고, 이러한 ‘과학적’연구는 성적소수

자들을 억압하는 데에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물론 1973년 미국 정신과 의사협회를 필두로, 오늘날 모든 사회에서는 더 이상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뿌리내린, 동성애자에게 지워진 편견의 대부분은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 이러한 탄압과 동시에 19세기 말부터 동성애자들의 투쟁 또한 시작되었다. 독일의 히르쉬펠트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는 당시의 사회 변혁 운동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문의 법 조항을 만들어 냈으므로 그 절정에 이른다. 그러나 스탈린에 의해 혁명이 변질되고 자본주의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면서부터 이 역사는 서서히 잊어져 가기 시작했고, 나치의 동성애자 학살에 이르러서 동성애 억압은 국에 달한다. 나치는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을 탄압하여 그들에게 분홍색 역삼각형을 붙이고 학살했다. 요즘은 이 분홍 역삼각형이 동성애자의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다.

- 동성애자 해방의 역사가 잊어져 감과 함께 억압은 다시 심화되었고, 그에 대한 동성애자들의 반격은 20세기 중반을 넘어서야 이루어지게 된다. 60년대 노동자, 여성, 반전 운동이 활발해진 시대 상황을 기반으로 동성애자들의 집단적 항거인 스톤월 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터지게 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다시 시작 되었다.

15. 동성애자와 가족주의

-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괜히 싫어하거나 미워하게 된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데에는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억압에 맞선 싸움을 전개할 때, 매우 중요하다.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은 앞서 역사에 대해 짚어 보았던 것처럼 19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영화 '프리스트'에서 주인공인 신부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멀리 당한 것은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신부가 만약 이성과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그는 그가 동성과 그랬을 때보다 상당히 적은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무수한 비난을 받은 이유는 그가 순결의 서약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성향을 가졌다는 것 때문이었다. 요컨대 문제는 동성애를 '특별히' 억압하는 데에 있으며,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조는 자본주의이며,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의 많은 부분들도 이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현재 모든 가치들에 우선하여 존재한다.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재생산을 위해 봉사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지 않거나 피해가 되는 것들을 배격한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 가족은 해체되기 시작했다. 이는 더 이상 전통적 가족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며, 또한 전통적인 가족을 꾸린다는 것이

당시의 대부분의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가족은 새로운 노동력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노동력의 육체적, 심리적 재생산을 담당해 왔는데, 이제 그 비용을 사회가 지불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사회가 확대되었고, 개인들이 생산하는 많은 부분이 이제 개인, 또는 그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로 또는 자본가들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 수익을 얻는 이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자본가들은 여전히 가족이 이 모든 비용을 떠안아 주기를 바랬다. 스스로 가족을 꾸려 그 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면, 이는 자본의 확대 재생산에 더없는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족은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교육의 장으로서 이 사회에 순응하도록 도와준다.

- 우리는 가족 안에서 매우 많은 이 사회의 고정된 '질서'란 것을 배운다. (물론 그 안에는 일부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성에 대한 금기를 배우고, 동성애에 대한 직·간접적인 터부를 습득한다. 우리는 힘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를 억압하는 이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 도리어 믿음과 충성심을 배운다) 그러나 가족이 더 이상 생존에 있어서 필수요소도 아닐뿐더러, 가족을 이루는 것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는 가족을 구성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현재도 이러한 상황은 그다지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는지 모른다.

-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가족을 구성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성들은 스스로의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일종의 노예로써 종속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심지어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도 찾지 못하기도 한다. 남성도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을 일들에 자신의 수입을 쏟아 부어야 한다. 아울러 가족은 이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이다. 그곳에서 가장 많은 성폭력, 폭력 그리고 살인이 일어난다. (물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심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라는 점에서, 다른 관계에서는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는 것들이 쉽게 묵인되곤 한다) 구성원들에게 권력적 불평등이 있을 때 가족을 구성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받게 될 이익이 아닌 것들을 애써 자신의 적은 수입을 조개어 담당한다는 것, 원하지 않는 이와-물론 처음에는 원했을지 모르지만-영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 등은 결코 사람들이 그냥 선택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가족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경우에만 한정지어 판단하는 것이다. 가족이 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판단에만 치우칠 수도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가족이 결코 자유로운 공간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커밍아웃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커밍아웃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족이 전체 사회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요컨대 현재의 사회를 가장 효율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강요가 필수적이

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가족에 대한 강요가 동성애자를 억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동성애자는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성애적 일부일처의 결혼제도를 근거로 한, 이 사회의 가족의 구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따라서 이 사회가 가족을 이룰 때에만 주는 많은 혜택들에서 배제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자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다.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데에는, 각종 의식적인 부분의 교육과 개조가 필요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처벌 또는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먼저, 행복한 가족이라는 환상을 갖게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많은 관계들에 있어서의 교육에 의해 그것은 형성되고 세뇌된다. 많은 이들에게 가족은 실제로 가장 불행하고, 벗어나고 싶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가족에 대한 완고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환상의 주입과 아울러, 우리는 가족이라는 틀을 구성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또는 이러한 틀을 애써 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도록 교육된다. 따라서 동성애자는 미혼모, 독신자, 이혼한 사람 등과 더불어 무언가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되며, 이들에게는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명예, 또는 혜택이 박탈된다.

- 둘째, 가족은 성역할이 고정되어 있을 때에 효율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회는 가족 안에서의 '적절한' 성역할을 강조하고, 이에 위배되는 이들을 이상한 이들로 몰거나, 바꾸려고 노력한다. 여성과 남성이 정해진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할 때에, 가족이란 정해진 방향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이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부각되는 때도 있다. 예를 들면, 2차대전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 (당시는 남성들이 전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노동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이상형은 현모양처이며, 이 사회는 여성들의 노동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사회를 보수화 시킬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여성을 가족의 천사로 미화시킨다. 동성애자들은 기존의 성역할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모두 남성답다거나, 여성 동성애자들이 모두 여성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동성애 커플에게서는 성행위에서의 역할 구분 이외에 이러한 역할 구분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역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의 성역할을 강요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일이다.

- 셋째, 가족을 만들고,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적 순종에 대한 강요와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의 조장이 필요하다. 가족은 구성원들이 정해진 배타적인 성적 관계를 맺을 때에만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어겼을 때에는 엄청난 비난과 처벌이 뒤따른다. 근친상간이나, 혼외성관계를 우리가 심지어 '본능적'으로 거부하도록 교육받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가족은

영속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낭만적 사랑이라는 관념을 주입시키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많은 이들이 환상을 가지고 뛰어들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강요할 때에, 동성애자들은 역시 공격의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동성애자들에 관해 만들어진 관념들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 줄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성적 순종의 제도가 없다는 것은 성적 자율권을 행사하는 많은 동성애자들은 적절한 표적이 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성적 환상이 필요한데, 그것은 결혼 제도 외부에서의 관계들을 폄하시키고, 성을 신비화시키거나, 또는 더러운 것으로 매도하거나, 이성애자 이외의 성적 소수 집단들을 변태로 규정짓고, 이들을 공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넷째, 따라서 사회에서 그 구성원에게 가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구성할 때에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현재 이 사회에서 주어지는 많은 혜택들은 이성애 가족에게만 주어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회는 단지 가족을 이룬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사회가 담당해야 할 비용의 매우 많은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혜택이란 가족이 사회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매우 작다)

- 따라서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인 가족을 이룬다 하더라도 기존 혜택들이 그대로 주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한 동성애자들이 어렵게 가족제도 안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이 사회는 공격의 대상이 필요할 때에 언제라도 그것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므로, 이는 매우 위태로운 성과에 불과할 것이다.

- 이 사회는 수많은 구성원의 희생을 바탕으로 지탱된다. 상황에 따라 이 사회는 공격대상을 필요로 한다. 동성애자는 그 주요 대상이 되어 왔고, 우리가 철저히 투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동성애자 억압의 원인은 위에서 말한 것들만이 아닐지 모른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우리의 인식이 과대망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동성애자 억압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그를 바탕으로 한 투쟁을 전개할 때에만, 우리의 모든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회의와, 동성애자로서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모든 동성애자가 자유로워질 때, 모든 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 우리는 지금까지 동성애자로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또한 이를 가지고 토론을 해 보지도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성애자의 삶을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거나, 자신의 상상력에 의존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자신이 할 것이지만, 함께 고민해 본다면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

16. 매카시즘과 동성애자에 대한 마녀사냥

- 2차 세계대전 동안의 반(反)동성애자 법이 동성애자 군인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면, 1940년대 말과 1950년 초의 상황은 동성애자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때는 조셉 매카시(1909-1957. 위스콘신주 상원의원)가 미국인의 삶에 끼친 영향 때문에 소위 매카시 시대라고 불리던 시기였다. 파시즘과 전쟁 대신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라는 냉전으로 돌아선 후, 평화에 대한 희망은 양 국가의 패권을 향한 전 세계적인 경쟁으로 사라져 갔다. 이제 공산주의의 위협과 마주치면서 미국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원병에 의지하는 대신에, 지속적이거나 영구적인 군대를 유지할 필요를 처음으로 느꼈다.

- 1950년 봄 내내 언론에는 성도착자들의 위험성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로 채워졌다. 뉴욕타임스는 1950년 5, 6월에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도 7개 정도 기사화했다. 고발은 상원의원 제네스 웨리와 상원의원 매카시가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매카시 상원의원의 반 동성애 캠페인은 그의 수석 고문 론 콘에 의해 계획되었는데, 그는 1980년대 중반에 결국 에이즈로 사망한 숨겨진 게이였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매카시는 1950년 6월에 성도착자 대규모 조사를 명령했다. 이 시기에 겁을 먹은 정부 관료들은 파괴분자들을 보호한다고 비난을 받을까 우려하여 자기 부서에서 일하는 동성애자들을 쫓아내려고 많은 애를 썼다. 논쟁이 일어나기 전에 (1947년부터 1950년까지) 공무원 직책에서 해고된 동성애자는 한 달에 평균 5명 정도였으나, 1950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한 달에 60명 이상이 해고 되었다.

- 심지어는 미국의 몇몇 동맹국들조차 반 동성애자 책략을 이용했다. 그 중 한 피해자가 영국의 수학자이자 컴퓨터 이론가인 알란 튜링인데, 그는 나치의 비밀 암호를 해독하여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할 수 있게 한 주역이었다. 튜링은 50년대 초에 함정에 빠져 게이임이 밝혀졌고, 이후 잠재적인 파괴분자로 영국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결국 그는 1954년에 자살했다.

17. 스톤월 항쟁

- 스톤월이라는 말은 게이와 레즈비언들에게 투쟁의 역사와 같은 의미이다.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 매년 6월에 열리는 동성애자 자긍심 행진은 1969년 6월에 있었던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스톤월 항쟁을 동성애자 운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스톤월 항쟁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들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사건은 전설이 되었다. 6월말

뉴욕 맨하튼의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항쟁이 있던 그날 밤, 스톤월이라는 게이바에서 정기적인 경찰 단속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동성애자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 1950년대와 1960년대의 호모필 운동은 일반적으로 작고 조심스러운 운동이었는데, 그 운동은 동성애자들에게 일반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맞춰가라고 성교했다. 이런 전략은 보통의 미국 동성애자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었으며,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시민권리운동과 베트남 전쟁,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마틴 루터 킹과 그의 아들의 암살 같은 60년대의 사건들은 많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사회의 전반적인 전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다. 개인들은 문제가 있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사회의 태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흑인이나 여성들처럼 동성애자들도 그들을 억압하는 제도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많은 동성애자들은 싸워나가려 했고, 스톤월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항쟁이 있는 후, 보다 투쟁적인 태도와 새로운 지도자가 출현했다. 새로운 전략은 화해보다는 투쟁이었다. 동성애자는 좋은 것이며, 동성애자의 권력, 그리고 동성애자의 자유는 당시의 강령이 되었다.

18. 동성애 혐오범죄

- 1998년 10월 미국은 혐오범죄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는 사건을 겪게 된다. 와이오밍주 라라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희생자는 와이오밍 주립대 학생인 매튜 셰퍼드(당시 22세)로 그는 심한 폭행과 화상, 총탄에 의한 뇌손상을 입은 채 18시간 나무울타리에 묶여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곧 2명의 청년을 체포, 살인미수, 납치 및 강도죄로 기소했으며 이들의 범행을 도운 2명의 여성도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 청년들은 셰퍼드에게 자신들도 동성애자라고 속여 유인한 뒤 외딴 곳으로 끌고 가 잔인하게 폭행하고 허수아비처럼 울타리에 매달아 놓기까지 했다. 이 사건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감이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정도로 미국 내 일부 계층의 적대감과 속 좁음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해 주었고, 미국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가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무서운 일’이라고 논평하고 리처드 겐하트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와 함께 의회에 계류 중인 혐오범죄 처벌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의 통과를 반대했다.

- 지난 1999년에 전국적으로 혐오범죄로 FBI에 보고된 사례는 총 7,876건이며 이중에 4,295건이 인종문제, 1,411건이 종교문제, 1,317건이 게이/레즈비언과 같은 성적소수자 문제,

19건이 장애인 차별문제였다.

19. HIV/AIDS와 인권²⁰⁾

- 20세기 에이즈의 출현과 이 질병으로 인한 감염인의 고통, 그리고 이러한 감염인들이 추가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정부 및 사회로부터의 제한과 차별은 새로운 유형의 인권문제이다.

- 에이즈는 분명 질병이며, 이에 대한 일차적인 접근은 의학분야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에이즈로 고통 받는 주체는 분명 인간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단지 환자로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차별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인권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 UNAIDS의 통계에 의하면, 2000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3천 6백만 명의 에이즈 감염인이 있으며, 매년 약 530만 명의 새로운 감염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무서운 질병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감염인의 인권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약 1,500명의 감염인이 보고되었으며, 수천의 보고되지 않은 감염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에이즈의 증가와 이에 따른 개인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측면에서의 차별은 이미 한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 주요한 사회문제이자 인권문제로 대두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는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비 감염인의 시각에서 수립된 통제를 통한 예방이라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잘못된 사회적 편견이 반영된 이러한 정책은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는 낳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건강 및 복지를 보장하는 데 충분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생활수준에는 의식주, 의료, 필요한 사회적 시설의 이용에 대한 보장도 포함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실업, 질병, 능력 상실, 배우자의 사망, 노년 또는 불가항력에서 오는 그 밖의 생계불능의 경우에,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제12조는 국민의 건강권을 인권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가맹국들이 "모든 국민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동 조 (c)항을 통해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 오완호,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 실린 글. 2001. 오완호는 18년간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렇듯, 이미 국제사회는 건강 및 복지를 추구할 권리를 명백히 인권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장 및 질병의 예방과 치료, 역제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이러한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였으나, 한국에서의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은 알게 모르게 제한되고, 감염자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이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나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감염자를 동성애 행위를 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도덕적 또는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사회적 편견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무서운 질병을 정복하기 위한 인류의 도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서운 질병에 의해 고통당하는 개개인을 더욱 절망케 한다.

-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이즈 감염은 단지 자신의 행위에만 기인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수혈인데, 이는 그 당사자의 도덕성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그리고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인간을 고립시키고 차별을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 도덕이란 것이 한 인간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 단지 폭력일 뿐이다. 특히 에이즈 감염자를 고립화 또는 무력화시키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거나, 비 감염인의 시각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제중심의 정책은 더욱 더 감염자들을 자포자기 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이 일탈로 이어지게 될 경우, 보복적 심리에서 에이즈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범죄를 낳게 된다.

- 현 후천성면역결핍증병 예방법 제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2장의 신고 및 보고, 제3장의 검진, 제4장의 감염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은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범주, 즉 공공의 안전을 위한 범위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위험적 요소가 매우 강하며, 감염자의 인권을 심대하게 제한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인 사생활권, 명예권, 가족 유지권, 생명권 등이 통제를 통한 에이즈에 대한 예방 또는 비 감염자 중심의 정책으로 심각히 제한되고 있다. 비록 보고체계를 통한 관리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질병을 국가가 관리하고, 또한 개인의 사생활 및 인적사항을 엄밀하게 법률에 의해 보호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와 같이 개인의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사회에서는 법률적, 사회적 의미에서의 사생활권은 이미 무용지물일 뿐이다.

- 이로 인해 에이즈 감염자들이 가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직업을 유지하여 생활할 권리, 개인의 명예를 유지하고 자유로운 여생을 누릴 권리, 사회적 관심 속에서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권리 등은 감염사실의 확인과 동시에 자동 박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염여부를 자신 있게 검사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불안감

속에서 알게 모르게 에이즈를 전파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

- 물론 여러 가지 인권침해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통한 감염의 차단이라는 통제 위주의 정책이 한국인을 그 대상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월드컵이란 국가 행사를 통해 입국할 50만 명 정도의 관광객과 세계화의 과정에서 직업을 찾아 한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수십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한 감염의 확산에 대해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 국가의 인권의 척도는 그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다수의 태도에서 결정된다. 이른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동성애자, 소수 인종 및 소수 토착민, 그리고 에이즈 감염자와 같이 특수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회가 관심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차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회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한국에서 에이즈 감염자를 차별하는 억압 구조는 감염자의 생활과 고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생활을 유린당하고 사회적 편견에 의해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현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모든 정책은 인권의 보편성에 근거해 전면 재편되어야 한다.

- 먼저 규제와 통제를 통한 예방을 전제로 한 현재의 법률체계는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위헌여부에 대한 법률적 투쟁은 물론, 감염자에게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는 모든 부문에 대응하는 법률적 지원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직업 및 생계, 사생활권 및 건강권을 위협하는 모든 부문에 대한 법률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 및 관련단체가 에이즈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일차적으로 풀고, 정부는 이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이차적 책임 기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소수의 에이즈 감염자를 통제하여 이를 예방한다는 가정을 폐기하고, 다수의 감염자를 위한 집단적 사회적 대처라는 차원으로 현 정책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본적 예방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동시에 에이즈 감염자의 문제가 바로 인권문제라는 사실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 세계화 시대에 에이즈 감염자의 급격한 증대는 필연적이므로, 이를 위한 정부재정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며 사회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능동적인 연구와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강달천, [동성애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 2005. 한국리서치
-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천주교인권위원회, 2002.
-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 한국성폭력상담소, 2004.
-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홍구, 임태훈, 이재승, 박원석, 김성전, 김정식
- 국방부, [군인의 성 인지력 향상 교육 교재], 2005, 연구기관 여성부
-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2006.
- 국방부, [부대관리 노하우 123], 2006.
- 국방부,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2006
- 김동준, 한홍구, 조효제 엮음,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중 [성적소수자의 삶과 인권의 전망], 서동진, 창비, 2006
- 노라 칼린 지음, 심인숙 옮김, [동성애자억압의 사회사], 책갈피, 1995
- 노엘 헬리팩스 지음, 심인숙 옮김, [동성애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 책갈피, 1995
- 마이클 프리먼 지음, 김철효 옮김, [인권 : 이론과 실천], 아르케, 2005
- 미셸린 이샤이 지음, 조효제 옮김, [세계인권사상사], 길, 2005
- 사회비평, [바람직한 AIDS 정책-국립보건원의 AIDS 정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임태훈, 나남출판사, 2002년 가을 통권33호
- 서동진,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 하랴], 문예마당, 1996
- 이남석, [차이의 정치-이제 소수를 위하여], 책세상, 2001
- 육군본부, [부대관리 Know-How123], 2006
- 윤가현, [동성애 심리학], 학지사, 1997
- 제프리 워스 지음, 서동진 옮김, [섹슈얼리티 : 성의정치], 현실문화연구, 1994
- 최협, 김성국, 정근식, 유명기 엮음,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중 [성적시민권과 비이성애적 주체], 서동진, 한울아카데미, 2004
- 케빈 제닝스 지음, 최이연 옮김, [역사속의 성적소수자], 이연문화, 1999
- 폴 러셀 지음, 이현숙 옮김, [Gay100 1, 2], 사회평론, 1996
- 한국인권재단 엮음,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중 [동성애자 인권], 임태훈, 사람생각, 2000
- 황해문화, [성적소수자는 민중이다, 시민이다], 서동진, 새얼문화재단, 2006년 봄호.